

농사꾼이 본 다석 선생님

저는 경남 함안에서 농사짓고 사는 김진웅입니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로 밥을 먹고 산지 올해로 18년째 접어든 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박영호 선생님의 당부가 있어서입니다.

저보다 다석 사상에 더 많은 조예와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다석 선생님께서는 사람답게 살려면 농사를 짓고 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귀농하여 농사로 밥을 먹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라 선불리 귀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이 도회지의 삶을 떠나 이렇게 17년 넘게 농사로 밥을 먹고 있으니 아마 선생님께서 이 사람의 말도 한 번 들어보자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드릴만한 말씀도 변변치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도 별로 없어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면 그저 아버지이신 하늬와 어머니이신 땅에 의지해 하루 종일 농사로 먹을거리를 찾아 소일하다보니 현실의 고달픔만 몸으로 느끼고 영성은 멀어져 버려 소위 ‘한소식’ 따위를 전해드릴만한 경험이나 공부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농하게 된 동기와 박영호 선생님과 다석 사상이 제게 준 영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귀농생활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귀농동기

제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것은 1998년 쯤 입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이였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이 시골이라 언젠가는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은 마음은 진작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그 쯤인 듯합니다.

그래서 도법 스님이 주관하시는 실상사 귀농학교에도 가보고, 법정 스님이 회주로 계시던 길상사에서 4박5일, 통도사 3박4일 수련회 따위에 다니면서 제 삶의 정체성을 찾아보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석가, 노자, 장자, 톨스토이를 만나고 간디, 비노바 바베, 오쇼 라즈니쉬, 까비르, 소로우, 스코트니어링부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보았던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 조나단’을 다시 만나면서, 그 동안 내가 살아온 몸짓이 결국은 어부의 뱃전에 서성이면서 어부가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먹기 위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민운동가 천규석 선생이 말한 ‘배부른 머슴으로 살 것인가, 배고픈 주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린 배를 안고서 더 높게 더 빠르게 나는 방법을 연마하던 갈매기 조나단과 같은 삶을 살고자 귀농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박영호 선생님과 다석 길벗님들께 도연명의 귀원전거를 인용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歸田園居

少無適俗韻(소무적속운) 어려서부터 세속과 맞지 않고
性本愛丘山(성본애구산) 타고나길 자연을 좋아했으나
誤落塵網中(오락진망중) 어찌다 세속의 그물에 떨어져
一去三十年(일거삼십년) 어느덧 삼십년이 흘러버렸네.

羈鳥戀舊林(기조연구림) 떠도는 새 옛 숲을 그리워하고
池魚思故淵(지어사고연) 연못 고기 옛 웅덩이 생각하듯이
開荒南野際(개황남야제) 남쪽 들 가장자리 황무지 일구며
守拙歸園田(수拙귀원전) 본성대로 살려고 전원엔 돌아왔네.

-- <중략(中略)> --

戶庭無盡雜(호정무진잡) 집안에는 번거로운 일이 없고
虛室有餘閒(허실유여한) 텅 빈 방안에는 한가함 있어
久在樊籠裏(구재번롱리)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 살다가
復得返自然(부득반자연) 이제야 다시 자연으로 돌아왔네. - 陶淵明 -

귀농 당시엔 귀농하고픈 제 마음을 어찌 이리도 잘 표현했나 싶어 한동안은 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귀농 후 현실은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그 얘기는 아래 귀농생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다석 사상을 접한 계기

이렇게 귀농을 생각하며 여러 책과 경험을 쌓던 중에 뜻밖이 제게 ‘빛과 열의 노래’라는 무애사에서 출간한 노자 도덕경을 해설한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책 서문을 읽다보니 유교, 불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성의(誠義)와 불성(佛性), 성령(聖靈)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교에 대한 제 생각은 각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가 최고의 진리를 표방하고, 서로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같다는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분이 누군가하고 보았더니 박영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력을 보니 현재 성천문화재단에서 다석 사상 연구원으로 계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엘지복지재단에 근무를 하면서 재단연구회라는 모임에 참석해서 재단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임에는 성천문화재단 김홍근 실장(현 재단 이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근 실장에게 박영호라는 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성천문화재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에게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는 다석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5월 25일부터 맹구우목(盲龜遇木)의 인연으로 뜻밖 한 명과 둘이서 매주 화요일 다석 강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안양에서 살았고 선생님은 의왕에 살고 계셨기에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을 집까지 모셔드리며 귀농하기 전까지 2001년 10월 16일까지 약 2년5개월 정도 박영호 선생님께서부터 다석 사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들은 강의의 주제가 자강불식(自強不息)이었는데, 어찌면 제 귀농의 목표를 박영호 선생님께서 저와의 첫 만남에서 암시를 해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3. 다석사상의 영향

귀농하기 전 박영호 선생님의 강의와 다석 사상 책을 읽으며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석 전기에 보면,

‘절대자 하느님, 무한대의 허공 그리고 열의 맘은 왔다가 가거나 났다가 죽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합니다. 꽃을 보는데 보통 꽃 테두리 안의 꽃만 보지, 꽃 테두리 걸인 변두리 허공에는 눈길조차 주려고 안 합니다. 꽃을 있게 하는 것은 허공입니다. 이 사람은 요새 와서는 허공이야말로 가장 다정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허공이 참입니다.’

‘종교나 형이상학은 이 세상을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라도 좀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 한없이 넓어지면 빔(空, 절대)에 다다를 것입니다. **빔은 맨 처음으로 생명의 근원ियो, 일체의 뿌리입니다. 곧 하느님 건원(乾元)입니다.** 나도 인격적인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인격적이지만 우리 같은 인격은 아닙니다. 인격적이란 맨 처음 일체라는 뜻입니다. 유무를 초월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을 못 하니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십니다.**’라 돼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보이는 건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테두리는 허공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며, 허공, 즉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빔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은 그야말로 40여 평생에서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석 선생님은 사람답게 살려면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조선이 망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불한당(不汗黨), 그러니까 이마에 땀 흘리기 싫어하는 양반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존민비(官尊民卑) 생각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는데도 그 생각을 깨끗이 버리지 못하는 것을 통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으로는 대학에 가지마라 하였습니다. 대학에 가서 출세를 하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자신은 호의호식하겠다는 말이니

이 또한 조선시대 양반과 다름없는 행태로 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다석 선생님은 동경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여 그 후 대학에는 가지 않았지만, 홀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공맹사상, 노장사상 등 동서양의 철학과 경전을 두루 섭렵하시어 YMCA 연경반(研經班)을 35년 간 이끌기도 하셨으며, 평생을 오로지 수도와 교육에 헌신하면서 ‘참’을 찾고, ‘참’을 잡고, ‘참’을 드러내고, ‘참’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출세를 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하라 가르치는데 다석 선생님은 숨으라 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숨어야 하며 숨으면 숨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오르려는 사람은 깊이 숨어야 한다.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으로 자기 훈련, 자기 수양으로 사람은 진리인 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석 선생님은 아버지 탈상을 마치자마자 1935년 북한산 자락 구기리로 귀촌을 하셨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구기리로 귀촌을 하였지만 실제로 농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이웃집 사람의 도움과 이상웅이라는 일꾼을 두어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석 사상 공부를 저와 함께 했던 뜻벗은 지금 춘천댐에서 청소용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벗이 다석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일삼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이 생겨야 생각을 하는데 다석 선생님은 ‘생각을 일삼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느님이란 화두를 잡고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한 끼만을 드시면서 치열한 정신노동을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이 ‘다석일지’이구요.

이런 다석 선생님의 모습은 귀농을 생각하고 있던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면서 다석 선생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불교의 삼독인 탐.진.치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과욕을 부리지 말자, 둘째는 다른 이를 탓하거나 화를 내지 말자, 그리고 귀농 정착을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일이 되어지는 대로 하자였습니다. 귀농한 지 18년 쯤, 그야말로 이름 없는 들풀처럼 그저 농사꾼으로만 살려던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네 이장 자리도, 군의원 자리도 넘본 일 없으며 오직 아버지이신 하늘과 어머니이신 땅을 의지처로 삼아 천하대본(天下大本)이라는 가장 낮은 층의 기층(基層)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귀농생활

집사람한테 시골로 가겠다고 말을 꺼낸 지 3년 여 만인 제 나이 45살이 되어서야 아내의 마지못한 묵시적 허락을 받고서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귀농을 해 농

고 이런저런 책을 보다보니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애깁니다. 제가 귀농할 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는 다석 선생님이 가친의 사업을 도우시다가 북한산 기슭 구기동으로 농사를 지으려 가신 나이이고, 간디가 아쉬람을 건설하여 인도의 불가촉천민들과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나이이며, 톨스토이가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집 노예를 모두 해방하고 '톨스토이 농장'을 건설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무리' '조화로운 삶'라는 귀농의 실천지침서 작가인 스코트니어링이 버몬트의 산골에 등지를 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도연명이 사서직을 그만두고 귀원전거라는 글을 쓰고 시골에 등지를 튼 나이가 44살, 고갱이 프랑스에서 타이티 섬으로 간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리고 다석 선생님 둘째 아들 자상씨께서 강원도 평창으로 귀농을 한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께서도 사람은 마흔에서 오십 사이에 영적인 뭔가를 깨달아야 할 나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남자 나이 마흔이면 새로운 정신적 사춘기를 겪는다.'는 정신분석학자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농 초기엔 시골의 삶이 참 좋았습니다.

과수원에 풀어놓은 닭, 오리가 자유롭게 노닐고,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 길을 개와 단 둘이서 거닐며 맑은 공기 흠뻑 마시고, 봄이면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일어나 밭을 갈고, 부드러운 흙 헤집어 씨앗 뿌려 놓으면 봄비에 땅을 이고 돌아 나오는 생명의 신비를 직접 볼 수 있고, 여름이면 성성하게 자란 곡식들 쳐다보며 가을 기다리는 재미, 가을이면 영근 알곡들 하나 둘씩 거둬들이는 재미,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에 등 지저대며 군밤 먹는 재미가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건 사실 시골의 삶 중에서 절반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개밥도, 닭 모이도, 흐트러져 있는 농기구 정리도, 밭에 풀을 매고 베는 일도 모두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참으로 고달프습니다. 가끔 도회지 친구들이 체게 묻습니다. 시골생활 만족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반은 만족한다고요. 시골 생활도 봄, 가을은 날씨가 좋아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장마와 태풍, 무더위는 농사꾼에게 큰 걱정거리를 주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엔 겨울을 주어 좋기도 하지만 단열이 잘 안된 주택생활은 추위 때문에 역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은 보더라도 낮은 고달프기에 싫고 밤은 편안한 휴식을 주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니 반 정도는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치루는 시험은 100점 만점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100점 만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반 정도 만족하는 삶이면 100점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농한 다음해 초여름,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들깨 모종을 얻어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들깨가 아침에는 팔팔하다가 오후가 되면 따가운 햇살에 폭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면 아침이슬을 먹고 다시 꼳꼳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기를 사 나흘 하더니 제 뿌리를 땅에 박고 나서는 꼳꼳하게 서서 다시는 고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골에서 뿌리를 박고 자립을 하려면 적어도 4-5년은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귀농초기에는 무농약 감농사를 지으며 꽤 힘(力)도 들고 심(心)도 들었습니다. 감 수확량이 매 년 50%, 30%, 20%로 줄더니 급기야 7년 전에는 1500여 평의 과수원에서 병들지 않은 단감을 10키로 상자로 9상자만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800여 상자를, 보통은 600여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겨우 9 상자만을 생산한 것입니다. 무농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반 관행농 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노력을 더하였지만 수확량이 이렇게 격감되는 걸 보면서, 무농약 농사는 제 능력 밖인 걸 깨닫고 저농약으로 감을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의 삶이 내가 살기 위해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죽임의 문화'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시골의 삶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살림(生)의 문화'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만큼은 '상품(商品)'이라는 이윤추구를 위한 상거래의 수단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농사는 포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농산물을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농사라면 많은 농약과 성장촉진제, 착색제 따위를 사용하여 과일을 더 크고, 색깔도 좋게 하여 상품(商品)을 만들어 투입비용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길벗농원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초제를 사용한 적이 없이 예초기로 풀을 베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관행농에서 8번~15번 정도 사용하는 농약을, 3번에서 4번 정도만 사용하여 과일이 좀 작고 흠이 있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골이라고 하면 쉽게 맑은 공기, 좋은 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저가 경험한 바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도회지에 살 때 목욕탕에 가서 귀이개로 귀를 후비면 귀청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골 온 후 목욕탕에 가서 귀를 후벼보면 귀청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콧구멍도 시키면 경우가 많았고요. 이는 예초기를 깊어지고 풀을 베거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먼지나 매연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사실 귀농 후 두 번 정도의 좀 힘든 고비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이 힘들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져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귀농 후 4, 5년이 지나며 가졌던 갱년기 우울증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6년 결핵과 그 후유증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다. 농사가 망가지며 아내는 겨울 한철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자고 안양으로 떠나고 아내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다보니 이런 저런 우울한 생각들이 마음을 많이 해친 것 같았습니다. 자고 나면 호흡이 가쁘고 심장도 두근거리며 현기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건강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요. 그때 이런 시련을 견디며 박영호 선생님께 편지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목숨은 하늘에 맡기면 되는 것이니 살아남으려 애쓰지 마라. 이 마음이 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영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늘로부터 숨을 타서, 땅에 의지해 몸을 살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때 숨을 주신 분께서 숨을 거둬들이면 그 때 지구별로 돌아가 땅보탬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 마무리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귀농한 제자를 위해서 제가 귀농한 지역인 ‘함안(咸安)’과 제 이름 ‘진웅(鎭雄)’을 넣어 귀농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민(不敏)한 제자는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늘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咸有一德加農藝 다 한 속알 지냈는데 농사 재주 더하고
安心立命損地憂 맘 고요히 열 목숨 세우니 세상 근심 덜었네
鎭治獸慾去三毒 짐승욕심 다스리니 셋 못됨이 사라지고
雄志靈性來天國 일어나를 깨닫자는 큰 뜻 하느님 나라 오리라

(2003. 박영호 지음)

(폴이)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농사짓는 것을 더하게 되었다. 안심입명 하니 땅에 근심을 던다. 수욕을 다스리니 삼독이 떠나가고, 일어나를 향한 큰 뜻 하나님 나라 오리.

그동안 저는 귀농생활을 일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두 번의 시련을 겪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제는 일하는 재미로 시골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길렀던 닭, 오리, 개 따위 모든 가금들도 다 처분했습니다. 농토도 줄이고 일도 줄여, 이제는 노동에 투자했던 시간을 하늘을 향한 정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하늘을 이고 살아왔지만, 땅의 일이 너무 많아 낮 동안에는 하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는 기도로나마 겨우 하늘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귀농하면 참으로 좋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 시골의 삶도 이처럼 이런 저런 곤궁함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귀농해 살면서 아내에게 늘 미안

했습니다. 지금도 귀농한 죄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줄은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시골살이가 주는 보편적인 불편함은 물론, 주택의 불편함과 파리, 모기, 쥐, 뱀 따위 벌레가 주는 일상의 괴롭힘은 아내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요새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들처럼 혼자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촌부(村婦)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도회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 보입니다.

농사일을 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네 삶은 힘이 들던, 심(心)이 들던 둘 중 하나는 드는데, 힘 사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골의 삶이 맞을 것 같고 심(心)드는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도회지의 삶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은 자본(資本)에 의지해 돈돈 하며 살 것인가, 자본(自本)에 의지해 다석 선생님처럼 하늘을 구하며 살 것인가는 각자의 근기(根器)에 따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자본(資本)이 근본인 사회라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자본(自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본(資本)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기에 농사로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땅에서 하늘을 주울 수 있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농사꾼으로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시골의 삶이 로망인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연세가 드신 후 귀촌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디에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몸이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편리한 곳에서 편하게 사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 시골이 좋으신 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귀촌을 해서 살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간 가을이면 길벗농원을 찾아 이 사람을 응원해 주셨던 박영호 선생님과 여러 길벗님들, 그리고 저희 길벗농원 단감과 대봉감을 매년 사 주셨던 길벗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